

○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전일대비 1.20원 하락한 1,178.40원에 마감

15일 환율은 전일대비 1.20원 하락한 1,178.4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1.40원 상승한 1,181.00원에 개장했다. 개장 이후 환율은 상승 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달러-위안 환율 하락에 연동으로 이내 반락하며 1,180원 선 부근에서 등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후 들어 코스피가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세에 상승세를 보이자 달러-원 환율도 낙폭을 확대하며 전일대비 1.20원 하락한 1,178.40원에 마감하였다. 장중 변동 폭은 4.8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1,034.53원이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181.00	1182.50	1177.70	1178.40	1180.2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035.42	1037.53	1032.87	1033.24

전일 유로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350.19	1353.62	1338.07	1338.68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18	0.71	1.93	4.72
결제환율(수입)	0.42	1.52	3.25	7.06

*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로 당일자 청약시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 해당월 말일(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기준

*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fx/index.do>)에서 확인가능

금일 전망

글로벌 달러화 강세 속 수급에 주목...1,180원대 초중반 중심 등락 예상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1.0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178.40원) 대비 5.05원 상승한 1,184.50원에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글로벌 달러화 강세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월 뉴욕 제조업 지수는 30.9로 예상치인 22.0을 큰 폭으로 상회하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었다. 이에 미국 10년 국채금리는 5.6bp가량 상승하며 1.6% 초반 레벨을 회복하였다. 미 금리 상승에 위험선호심리가 둔화되고 달러화도 강세 압력을 받으며 금일 달러-원 환율에 상승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예정된 삼성전자 배당금 지급 또한 달러 매수 요인으로 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공격적인 이월 네고 및 중공업 수주 소식에 따른 1,180원대 대기물량 유입은 상단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179.25 ~ 1187.00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3982.61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5.05원 ↑
	■ 美 다우지수 : 36087.45, -12.86p(-0.04%)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95.87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5467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